

### “환경운동 위해 ‘화엄경’ 이해해야”

#### 불교환경연대 초청강연서 김지하 시인 주장

‘오적(五賊)’의 김지하 시인이 광주를 찾았다.

생명평화를 애호하는 불교NGO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공동대표 법일)는 11월 29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2008 정기총회 및 김지하 시인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150여 불자들이 강당 안을 가득 메운 가운데 김지하 시인은 <화엄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인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는 자연과 생명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자각을 통해 가능하다”며 “환경운동을 위해서는 <화엄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법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에 돌 회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기초를 튼튼히 하며, 생명과 평화를 애호하고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지하 시인은 11월 29일 초청강연회에서 <화엄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초청강연회는 정인봉의 오카리나 연주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의 율해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는 동영상 상영, 다과회도 함께 열렸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어린이 생명학교와 환경법회, 빈그릇운동,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자비의 쌀 나누기 사업, 5·18묘역 작은음악회 등 사업을 2009년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대불련 광주지부 새 출발

### 6년 만의 조직정비... 정기사찰순례 등 계획

최근 6년여 동안 활동이 중단됐던 광주지역 대학생 불자 모임이 어렵게 다시 재개됐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47년차 광주지부(지부장 오경민, 이하 대불련 광주지부)는 11월 28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설했다.

행사에는 중심사 주지 지장 스님과 초대 광주지부 창립회원인 이수근 교수(서남대)를 비롯한 대불련 동문, 대학생 불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장 스님은 법문에서 “대학생 불자들이 외면보다는 자기 내적인 것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모든 향기 가운데 사람의 향기가 가장 멀리 가듯 스스로를

정돈하고 정진해야 오랜 기간 향기로움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문에 앞서 오경민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오즘 대학생 불교활동이 매우 힘들다”며 “어려운 위기일수록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생활하자”고 말했다. 오 지부장은 “대불련 광주지부는 더욱 힘찬 정진으로 21세기기를 선도해 나가는 보살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2000년초부터 어려운 부침을 겪었던 대불련 광주지부는 내년도 새로운 지부장과 임원을 선출해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6년여 동안 멈춰있던 조직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 지부



11월 28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열린 대불련 광주지부 출범식.

법회부터 새로 열고, 각 지회와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며, 정기 사찰 순례와 불교공부도 준비했다.

오경민 지부장은 대불련 광주지부의 산하 지회인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조선간호대학 불교학 생회의 역량을 강화해 지회 법회의 활성화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도제 스님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라”

#### 불일청년회 창립 29주년

광주 원각사 불일청년회(회장 이승동)는 11월 29일 광주은행 본점 3층 강당에서 ‘창립 29주년 기념법회 및 원각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역대 청년임원단과 문민정사 청년회 박민서 회장, 대불련 광주지부 회원, 각 불교단체 등을 포함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제 스님은 격려사에서 “부처님 법을 통해 세상이 환슬리지 않고 세

상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격려사에 앞서 이승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각사 불일청년회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법우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로 많은 일을 이뤄왔다”며, “선배들의 큰 원력과 회원들의 초발심으로 새로운 청년불교의 중흥시대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원각사 청년회는 34대 회장으로 범정택 법우를 선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지역문화 접목한 템플스테이 눈길

#### 금산사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예정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 템플스테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산사 체험과 지역문화를 접목해 차별화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가운데 김제 금산사 템플스테이의 변화가 눈길을 끈다.

11월 28~30일 금산사 산사체험 참가자들은 전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타악연주그룹 ‘동남풍’의 공연을 관람하며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사찰 내 문화재안내, 발우공양, 예불, 다도, 율력을 기본으로 명상, 참선 등 수행프로그램과 연등이나 염주 만들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에 전북지역 문화체험 기회를 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금산사 산사체험 지도법사 일각 스님은 “산사 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들도 소중한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 유영미(41·서울)씨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우리 문화의 실용적인 공연이 참으로 멋



금산사 산사체험 참가자들은 타악공연을 관람하며 지역문화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어지고 가락의 흥겨움이 더해져서 매우 좋았다”며 “산사체험을 통한 소리체험이 매우 인상적이며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의 변화는 처음이 아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와 연계한 템플스테이는 물론 코레일과 함께 ‘KTX타고 떠나는 산사체험’을 진행 중이다. 금산사는 앞으로도 지역의 한지를 이용한 전통차 만들기, 판소리 배우기, 전통차 만들기, 전주 한옥마을 방문 등 전통 산사체험과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신도임원 연수

#### 금산사·전북신도회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와 전북불교신도회(회장 김백희)는 11월 30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원행스님, 정무스님(포교원 포교국장), 보순스님(전북불교회관 원각)과 신도임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분발사 신도임원 연수교육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 법사 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법사 스님은 법에서 “불교는 자성을 깨닫는 종교”라며 “밝은 마음 자리, 맑은 마음자리에는 차별이 없으니 열불, 참선, 기도를 통해 마음 밝히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신도회를 중심으로 신생활이 어렵하게 이루어지도록 자리를 마련했다”며 “일단 교육을 통해 원만한 수행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연수교육 후에는 신도회 임원 간 2009년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도 따로 마련됐다. 2009년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기도정진으로 암이기고 이웃에 회향

####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익산 원경사 자비 스님

수년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행된 전주 35사단 세병호 광장에 연등이 켜지던 날 행사장 한 편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던 스님이 있었다. 한 사람이 다가와 왜 눈물을 보이냐고 묻자 “너무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고 스님은 답했다.

이날 말없이 눈물을 감추던 스님이 바로 익산 원경사 자비 스님(사진)인 것이 최근 알려졌다. 당시 왜 눈물을 보이셨냐고 물으니, 스님은 “그동안 35사단 세병호에 걸린 등이 낡아 떨어지고 빛은 바래고 부끄러웠는데 1000개 등을 스님



원경사 법당 앞에 붙은 ‘군법당에 초코파이 한상자 보내기 운동’을 권하는 문구에서 스님의 군포교에 대한 원력이 느껴진다. 스님의 자비는 군포교에 그치지 않는다. 원경사가 위치한 익산시 왕궁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달 후원금을 기탁하며 추운 겨울을 앞두고는 연탄 후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매년 3~4회의 경로잔치를 열고 있다. 치료비가 없어 고통 받는 전주의 14세 백혈병 환우에게 매년 50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남모르게 후원하기도 했다.

스님이 이웃을 위해 회향하고 사

는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한창 수행에 열중하고 있던 1988년 무렵 스님은 후두암 판정을 받았다. 치료에도 불응하고 자궁암 등 합병증을 얻었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하게 됐다. 스님은 “그동안 부처님 법만 족했다”는 생각에 가슴속 깊은 곳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고통을 참아내며 동굴 움푹에서 기도정진에 들어갔다. 3년 동안 숯가루 등 생식으로 기도정진하던 어느날 향기로움 향내음을 맡고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한참 뒤 정신을 차려보니 몸이 낡아갈듯 가벼워지며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암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후보살님의 기도를 받은 이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향하기로 하고 군포교와 이웃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기 시작했다.

자비 스님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도 없다.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놓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 자신은 작은 토틀이네 인법당과 쓰러져 가는 요사에 거주하면서 도 불사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군법당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서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고창 사회복지 발전 방안 모색

#### 고창복지관 개관 1주년

고창지역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발한 활동중인 고창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장 법안, 관장 무공, 이하 복지관)이 분주하다.

복지관은 11월 28일 개관 1주년 기념 사회복지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12월 2~3일 자비나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세미나는 ‘늘어선 주민의 사회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고창지역 사회복지 지원 현황을 살펴 체계적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공 스님은 “개관 1주년을 맞이해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늘어선 주민의 새로운 사회복지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에는 무공 스님 등 복지관 직원과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 모양적십자회, 고창YWCA, 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어르신, 복은 자원봉사단, 고창 성두부대 장병 등 고창지역 단체 200여 명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12권 출간**  
전 30권중 제 12권 출간! 가격 15,000원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인도리를 곁집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중사의 안목으로 1,454칙의 분공안을 한 척도 빠짐없이 펴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값 15,000원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사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쳐난 삶. 전강 대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았다.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극법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 넓이 20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잡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십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웅,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禪)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열린마음상담원**

**선남선녀 인연맺기 대성사**

**열린마음 대전 포교원 개원**

**한국 다중지능 적성 평가원**

나의 인생설계  
지능의 우선순위 파악  
성격의 유형파악  
적성에 맞는 직업파악  
학습방향제시  
결혼성격분석

**다중지능 적성 평가원?**

미국하버드대학 교육심리학 박사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과 피문학(지문학)이 접목된 과학적이고 획기적인 적성검사 방법입니다.

연대불교신문 대전지사  
취재, 구독, 광고 문의  
☎ 042-223-8214

☎ 042-223-8214

해설스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대전 중구 선화동 아르젠아파트 상가 1층 (후문 옆)

대성사 홈페이지 http://dss.or.kr | 다음카페 육천대성사 따뜻한 만남 인연맺기 http://cafe.daum.net/dasungsa